

군산시, 복지사각지대 가구 구제 나선다

저소득층 권리구제 위한 '제2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촉 기초수급자 조사 계획·보장비용 징수 등 심의·의결 활동

군산시가 저소득층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구제에 나선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의 권리구제방안을 위한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위원장으로 사회단체, 학교, 기관 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사회

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기금 운영방안, 국민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심의 대상자 확정 등 17가지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또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해체된 가구의 구제사항도 의결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함께 많은 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및 상생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 문열었다

마동도서관 내 운영

익산 어린이 영어도서관(사진)이 18일 정식 개관한다.

영어도서관은 익산시립 마동도서관에 딸린 어린이도서관을 개축해 지난 3월 임시 개관한 것으로 지상 2층, 전체 건물 면적 602㎡ 규모다. 자료실, 프로그램 운영실, 키즈룸, 영어 독서수준 진단실 등을 갖췄다.

1만1000여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노래로 부르는 영어', '편편스토리', '왕초보 영어' 등을 운영한다.

성인과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전주시, 청년심리 프로그램 '청년고민해우소' 운영

전주시가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심리코칭 프로그램인 '청년고민해우소'를 운영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청년소통공간 비빌 2호점인 커피마리안(덕진구 백제대로 652)에서 청년심리코칭 프로그램인 '청년고민해우소'를 진행한다.



순창군 경천 샛노란 금계국 만개

순창군 읍내 경천 산책로에 샛노란 금계국이 만개해 주인과 관광객 발길을 붙잡는다. 순창군은 지난해 4월부터 볼거리 제공과 경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천과 양지천 등 4곳에 씨를 뿌리고 가졌다.

순창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총력

전문직원 채용 홈페이지 관리 등 지속적인 농가 교육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직거래하는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관내 통신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60여개(소핑몰 114개·블로그 16개·기타 30여개 등)로, 주요 판매 품목은 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삼 채소, 장류 제품 등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1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농가도 다수 존재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소비트

렌드를 반영해 2017년부터 전자상거래 분야 전문직원을 채용해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순창 정보화 농업연구회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관리, 동영상 및 이미지 작업 방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해 온라인 마케팅 홍보 및 정보화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연구회 소속 회원 중 연 5000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농가도 10개 농가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교육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조상단 농업연구회 회장은 "오전에는 농

작물을 수확하고 오후에는 온라인 주문량 및 택배 발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선별과 포장에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판매를 시작하면서 농가 소득에도 쓸쓸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우체국 소핑몰 농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해 3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도 우체국을 비롯해 전북도 거시기 장터 판매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순창군 농특산물 소핑몰의 화면 및 기능 등을 새롭게 개선해 농특산물 직판장과의 연계 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남원시·호남지방통계청 지역거주 청년 일상 조사

남원시와 호남지방통계청이 손잡고 청년들의 일상에 대해 조사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008명을 대상으로 '2019년 남원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 최초로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진행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주거와 문화와 여가, 노동, 희망일자리, 취업 정책 등 총 10개 부문 46개 항목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농협-정읍제일고 교류 협약 체결

농산업 우수인재 양성·농촌 발전 머리 맞댄다

정읍농협과 정읍제일고가 농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지난 10일 협약식에는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과 류천호 정읍제일고 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기회 확대, 농업·농촌 지속 발전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협력,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첨단농업 역량 강화와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취·창업 기회 발굴에 공동으

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해 농업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은 "정읍지역 농업계 고등학생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농촌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농업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앞으로도 전북 지역에 있는 농업계 고교 8곳과 교류 협약을 체결해 농업인 우수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